십자가복음과 취직, 출세의 관계

(사무엘상 21:10~15)

10.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11.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12.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13.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14.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15.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복음과 취직, 출세의 관계>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십자가 복음과 취직, 출세의 관계'

2009년 동아일보에 "아인슈타인 꿈 접고 모래주머니 메고 뛰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었는데 흥미롭습니다. 내용은 서울의 강서구청에서 미화원 다섯 명 모집 공고에 63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 중에 대학 이상 졸업자가 11명이었고 전문대 졸업자가 12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신문기사는 그 중의 한 명인 김ㅇㅇ 씨를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방대의 물리학 박사과정을 마친 사람입니다. 20kg짜리 모래주머니를 들고 50m 달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미화원 체력심사를 위해 만든 시험입니다. 결과적으로 4초를 초과하는 바람에 박사인 김ㅇㅇ 씨가 채용시험에서 고배를 마시게 되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지난주에 대기업 현대나 LG 삼성에서 채용시험이 있었고 이번 주에는 금호나 SK 등에서 채용시험을 보는데 뉴스에서 '채용수능'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버 닥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박사과정을 마친 자나 석사과정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들이 취직을 못한 실업자인 상태를 말합니다. 고학력 실업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토록 취직이 어렵고 문제가 되는 세상에서 십자가 복음을 생활화하며 사는 것은 어떤 의미

가 있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생활화하는 것과 취업문제는 논리적으로 별개의 문제일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생활화하는 자에게 취업문제와의 관계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도대체 취업과 출세는 십자가 복음을 생활화하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인데, 취업이 급하다고 해서 십자가 복음을 마음에서 놓거나 뒷전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취업과 출세가 문제인 상황에서도 십자가 복음을 생활화하기를 우선시하며 끝까지 밀고나가다 보면 취업과 출세의 의미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취직 문제를 더 우선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십자가 복음의 빛 아래에서 보이는 취업과 출세의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복음적 삶은 나타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취업과 출세 문제를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될까요? 이 이야기가 십자가 복음을 생활화하면 반드시 취직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아예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고학력 실업자들이 학력을 깎아서 이력서를 쓰는 사람들도 생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중졸 학력으로 취직 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자신의 학력을 깎아서 이력서를 내고 지원서를 내는 경우가 생기는데 고학력이 오히려 취직의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러한 논리가 극대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생활화는 이 세상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제가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주님이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가지기가 아주 충실하게 열매를 맺어서 날마다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이제는 취직을 못합니다. 박사 학위 학력 때문에 취직 문이 더 좁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박사 학위가 있다면 교수나 연구원이나 자문기관으로 밖에는 취직할 수 없지만 그런 곳은 숫자가 적습니다. 차라리 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취직의 가능성이 더 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갖는 것은 박사 학위를 가진 것 정도와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의 어느 회사나 기업에 취직을 하는 것은 삼성의 이재용 씨가 어느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려는 것보다도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느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안달하는 것은, 빌게이츠가 미국의 편의점에 알바생으로 취직을 할 수 없어서 고민하는 것보다도 더 말이 안 되는 기현상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승천하신 예수님 안에 마음이 머물게 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괄호로 묶이는 것인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관계에 내 마음이 몰입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괄호로 묶이는 관계 사이에는 가족이나 직장

이나 나라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내 마음만이 묶인 상태에서는 세상에 취직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러면 이제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와 하나님이 괄호로 묶여 있을 때에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므로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에 해당되는 세상의 부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온 프로젝트를 위해서 취직이 필요하다면 취직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사람이 삼성에 취직을 한다면 하나님과 괄호로 묶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셔서, 삼성을 하나님과 나의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고 취직시키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십자가 생활화하는 사람이 삼성에 취직을 못 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프로젝트에 삼성이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셨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과 괄호로 묶인 자들은 세상에 취직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기업에 입사지원서를 내기도 하지만, 그 내막을 보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의 프로젝트에 대기업을 참여시킬지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업에 취직하지 못해서 안달복달하지 말고 나와 괄호로 묶인 하나님을 갖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취직이나 사업은 나의 사명이 아니며 하나님의 계획과 프로젝트에 있으면 하는 것이고 없으면 다른 것으로 메꿔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취업을 하지 못해서 안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당장 굶으며 라면만 먹고 살더라도 이 상황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죽더라도 끝까지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충분히 준비된 자로 보시고 필요한 대로 세상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취직시키실 것입니다. 내가 취직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온 프로젝트에 취직하는 것입니다. 내가 출세하는 것도 내가 세상에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출세하려는 자가 아니라 출세시키는 자고, 취직하려는 자가 아니라 취직 시키는 자입니다. 세상을 취직시켜야 하는 자들이 벌벌 떨고 있으면 안 되고, 한 끼 분량을 세 끼로 나눠먹는 한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상황은 역전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대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한 곳이 하필이면 블레셋의 가드에 이르게 됩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다섯 성읍 중에 하나로 다윗이 물맷돌로 죽였던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생각에는 이제 3~4년이 지났으므로 블레셋 사람들도 자신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을 대표하는 가장 뛰어난 전사인 골리앗이 자기네 동네 출신이었는데 다윗은 그를 죽인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을 향해 불리었던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노래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급해진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대문짝에서 괜히 무언가를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돌아다니는데 그 꼴을 한 번 생각해보세요.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아무리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이방 나라로 피신을 하고 이방민족들에게 자기의 안위를 의지하려고 한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결과적으로 더 큰 두려움을 안게 되었다고 해석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본문인데 다윗이 이 경험을 토대로 지은 시편들을 통해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여기에서 아기스를 '아비멜렉'이라고 칭한 것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과 같은 왕의 보통 명사입니다. 4~5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를 앙망하는 그들은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뜻이 됩니다. 노골적으로 본문에서 받은 인상의 반대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급하고 무서운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던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다 잊어버리고 블레셋의 가드 아기스 왕에게 안위를 맡기려고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시편56편에도 가드에 머물며 지은 시인데 다윗은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블레셋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요단강 서편 영역 안에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이 통치하는 현재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배하던 영역에 대해서도 다윗이 통치권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통치영역 안에서 발 디딜 곳이 없게 만드십니다. 사울을 대항하여 죽이려는 마음을 먹지 않고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다윗은 사울의 통치영역 안에서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바깥으로 밀려나게 된 것인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밀려난 곳은 이스라엘과 대치하는 블레셋이었고 골리앗의 출신지인 가드였기에 그곳에서도 다윗은 발 디딜 곳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다윗이 다 통치하게 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윗의 있을 곳을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미친 척을 한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는데 이것이 뜻하는 바는, 미친 사람은 기존의 인간 세상에서 독립된 인격자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다윗이 사울의 통치하에서도 블레셋에서도 의지할 곳이 없는 자가 되었음을 그의 미친 척하는 행동을 통하여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갖는다.'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에 삼상17: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

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갖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잡는다.'는 것은 기존의 인간 세상에서 완전히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뜻하는데, 다윗은 사울의 통치영역이나 블레셋의 아기스 통치영역이나 발 디딜 틈이 없었기에 결국 인간사회 바깥의 아둘람 굴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요17: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가지려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함을 뜻합니다.

취직은 인간 세상에서 나를 받아들여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사울 왕이 통치하던 체제와 나라가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통치하던 영역이나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통치하던 영역까지도 마음에서 다 버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만 갖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서 세워진 프로젝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통치영역이나 블레셋 아기스 왕의 모든 통치영역을 참여시키시는데 다윗에게 취직시키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취직과 출세에 가질 수 있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생겨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면 세상이 출세하는 것이고, 세상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철저하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질 때에 가능합니다. 발 디딜 틈이 없어진 다윗처럼 내 발을 빼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과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아들의 권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세상에 대해서 취업하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거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업과 일자리들과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발생한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더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몰입하고 집중해서 세상을 취직시킬 정도로 나를 믿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세상에 취직이 된다고 할지라도 사울처럼 세상을 붙잡게 될 뿐입니다. 십자가를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붙잡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얼마나 가지느냐가 결정됩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국면과 어떤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가짐이 흔들림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동안 우리를 애먹였던 취직과 출세문제를 역전시키셔서 이 세상을 취직시키고 출세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의 방향을 뒤집어서 이제 세상에 취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취직하게 해주셨으니, 이 허락이 우리 삶에서 날마다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